



갈래 복합 09 누가 우든 말 ? + 토론의 논제

나기주 최주사 운양대감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외세에 의한 아권침탈을 국가재정부족의 원인으로 봄.

가 “허울 좋은 독립, 조선 독립을 보장한다, 조선을 개화시킨다는 구실 아래 이권이란 이권은 저 오랑캐들이 다 차지해 버렸으니 피폐한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 매듭니까? 오로지 혈벗고 주린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 국가 재정을 세우고 왕실 비용을 충당하니…….” / 이렇게 나기주가 한탄하는데 이번엔 최 주사가 끼어들었다.

부족한 국가 재정으로 인해 백성들에 대한 수탈이 심해짐.

외세의 이권침탈을 돕는 반민족적 행위를 하는 조정대신

“조정 것들은 외국에 이권을 넘겨주고 구전 챙기는 거간꾼에 불과하죠. 그중 폐하의 총애가 가장 두터운 내장경 이용익의 발호가 가히 좌충우돌입니다. 벌써 수백만 금 모아 천하 거부가 되었다는 소문 아닙니까? 왕실 비용을 마련한다고 두만강, 압록강의 드넓은 삼림 채벌권을 노서아에 양도하질 않나, 법국 차관을 들여올 공리를 하지 않나, 봉세관을 팔도에 보내 세금을 더덕더덕 앵기고 있는 것도 그 작자의 사업일죠. 그중 우리 제주섬은 제일 만만하게 보아, 선산을 지키는 구부러진 소나무 한 그루에도, 띠풀 같은 잡초에도 세를 붙이니, 어찌 소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세액이 많은 지세가 큰 시빗거리일죠. 천지개벽 이래 수천 년 동안 우리 제주섬엔 지세라곤 없었습니다. 지세 대신 진상물을 꼬박꼬박 바치고 있는데, 그 위에 또 지세까지 내라니, 이런 부당한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대감.”

- ① 공직에있는 신하가 사욕을 챙김
- ② 개인의 사욕을 우선한다고 보아 백성 사이에서 조정 대신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있는 현실
- 세금의 명목으로 과도한 수탈이 자행되는 것이 소요(민란)의 원인임을 지적함.

국가에 대한 비판이 그들의 신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함.

“자네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소릴 하는구먼. 허허. 지세라면 별칭이 왕세(王稅)인데 제주섬도 조선 왕의 땅이거늘, 왕세는 내야 함이 도리가 아닌가. 요 근래는 진상도 하지 않는 모양인데…… 굴 과수원도 봉세관을 시켜 민간에 팔아 치워 폐지하지 않았는가.”

진상으로 대신했던 지세가 수천년 부과되는 상황의 부당함을 지적함.

(A), (B) : 지세부과가 정당하다고 보는 근거

“대감, 잘못 알고 계십니다요. 진상이 없어진 게 아닙죠. 굴 진상은 폐지된 게 사실입니다만 전복 진상은 어망세에 갖다 붙이고, 말 진상은 공마대전(貢馬代錢)이라 하여 돈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대감의 말에 대한 반박

나기주가 입을 열었다.

“흠,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진상이란 원래 속방(屬邦)이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이 아니오? 예로부터 이 섬에 왕세 대신 진상의 의무를 지운 것은 별다른 뜻이 있는 거지요. 왕화(王化)가 미치지 못하는 수천 리 물 밖에 있음을 기화로 자주 토란(土亂)을 일으켜 조정에 거역하는 섬 백성들을 무마시켜 보려는 고육지책이죠. 왕세가 없고 진상이 있음은 곧 제주섬이 아직도 탐라국의 전통을 보전하고 있다는 뜻이요.” / 이 말에 최 주사는 펄쩍 뿜듯이 놀란 얼굴로,

아직도 다른나라 (탐라국) 속국해서 진상하는거야!

국가에 대한 반역을 내뱉는것으로 오해될 여지

“원, 형님도, 탐라국이라뇨? 우리 섬 백성들도 어엿한 폐하의 적자인데…… 다만 섬 땅이 척박하여 세곡 마련이 어렵기로 대신 진상물로 백성 된 도리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제주의 진상은 종국과 속방사이의 진상과는 성격이 다른 것을 지적함. (은건과)

“하하, 최 형, 꽤나 몸을 사리는군. 내가 최 형을 반역죄로 밧고할까 봐 그러시오? 하하하.”

나기주가 이렇게 꺾꺾 호탕하게 웃고 최 주사는 고개를 숙인 채 난처한 듯 뒷머리를 긁었다.

나기주는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는 조정에 대한 반감을 지니고있음.

“가까이 방성칠란만 봐도 알지 않소.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섬 백성들 마음 한구석엔 옛날 탐라국 시절의 태평성대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은연중 있는 거요.”

이때 운양 대감의 꾸짖는 소리가 들렸다. **논리적 X**

[A] “그러나 이번 민회(民會)에 다른 세폐와 진상의 폐는 거론할지언정 왕세만은 시비 삼아서는 안 되는 거여. 왕세를 거역함은 국왕을 거역함이니!” 세 부당에 대한 비판이 국가에 대한 반역으로도 받아들여질 것을 경계함.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 하고 최 주사가 머리를 조아렸다. → 운양대감과 최 주사 간 사회적지위의 차이

지세납부잔성 : 운양 ↔ 나기주, 최

지세는 왕세다 (연역추론)

너넨 왕의 백성이다

너넨 지세 내야된다

은건과

지위높은 사람에게 대한 동의

- 현기영, 「변방에 우짖는 새」

제주도 민중들

(1898 방성철의 난 (남세개부) → 세폐 + 교폐

1901 신축제주항쟁 (이재주)

∴ 반외세 + 반봉건의 항쟁

나 S# 72. 제주성 안 교당(낮)

성당

외세의 침탈+공권력이 약화된 현실

민중편임

사또

채 군수: (별척 성을 내며) 이게 대체 무슨 일이오?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관장의 허락도 없이 무기고를 열다니요, 이곳 제주는 엄연히 대한 제국의 영토입니다.

구 신부: (못마땅한 얼굴로) 사또께선 무얼 하시는 분이오? 진작에 해산되었어야 할 폭도들이 다시 모여들고 있다는 소식도 못 들었소?

같은집단을 다르게지칭

외적 상황으로 화제를 제시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비판을 전환함.

제주민중

채 군수: 그거야 교당 측이 무장도 하지 않은 민당들을 습격한 것 때문 아니오? 화해를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고서 그런 법이 어디 있소?

구 신부 측의 행동이 문제의 본질적 원인을 지적

구 신부 측의 행동이 백성들과의 신의를 저버린 행위임을 비판함.

천주교 신자

최 선달: (발끈하여) 아니 사또 나으리, 난리를 진압할 책임이야 실은 사또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사또가 못 하시니까 우리가 대신 나선 것을 이제 와서 그 무슨 말씀이십니까.

채 군수: (성을 내며) 이놈! 군마로 관부를 범한 자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목을 베라 하였다. 대정군 관아를 난장 박살 낸 게 니놈이 한 짓인 줄 모를 줄 아느냐!

법이라는 공적 권위를 들어 상대의 비판을 반박하지만, 실제로 법적권한을 행사하지 X

구 신부: (꾸짖는 태도로) 최 선달! → 채 군수의 권위를 형식적으로 존중

최 선달: 죄송합니다. 신부님. → 사과의 대상이 채 군수가 X : 공권력의 약화

현실적인 상황을 이유로 제시하여 상호간의 협력을 제한함.

구 신부: 사또 너무 과녁치 마시오. 어쨌거나 난리를 진압 못한 죄로 관직을 삭탈당할 뻔한 걸 우리가 구해 준 셈 아니오. 그러니 과거사는 묻지 말고 이제부터 우리가 협력해야 하오. 폭도들이 동서 양진으로 나눠 며칠 후면 이곳으로 들이닥칠 거라 하는데 그 무지한 것들을 설득해 보겠다고 떠난 김 군수마저 감감무소식입니다. 나는 나대로 법국 군함을 요청하는 편지를 써 놓았으니 사또께서도 뭔가 할 일을 찾아보셔야 하지 않겠소?

민간을 빌미로 외세가 침입할 명분이 생김

프랑스군대 → 제주도 백성

채 군수: (단호하게) 구 신부! 그것만은 안 됩니다. 법국 군대가 제주섬에 들어오는 날엔 피아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 아닙니까?

외세침탈 + 백성들의 안위 걱정

(중략)

합리적 + 제주도민에게 우호적

S# 83. 군막 안

백성들의 군막

채 군수: 놈들이 명월진에서 한 짓을 생각하면 불이라도 삼키고 싶겠지만, 생각해 보시오. 신부들이 벌써 법국 군함과 군대를 부르러 보냈는데, 그들이 이 섬에 들어오는 날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소? <작년 청국에서 의화단 사람들이 성교 신부들과 신자들을 살해했다가 어떤 결말이 났는지를> 법국이면서 서양 각국들이 제 나라 사람들을 보호한답시고, 군대를 보내 대량 살육을 하고 급기야는 땅과 이운을 차지한다고 청국을 갈라 먹고 있지 않소? <법국 함대가 지금 태고*에 있는데 삼 일이면 제주에 도착한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들어 법국군대의 침입을 우려함

국제정세를 들어 제국주의적 침탈이 만연한 현실을 지적

상황의 급박함을 지적

민간은 법국군대의 형식적인 명분일 뿐. 제주민들의 대응과 무관하게 법국군대의 침탈이 일어날것임을 예상함.

마찬삼: 사또, 우리가 싸우지 않고 물러간다고 이 섬이 온전할 성싶소? 저 폭도들을 그냥 두면 이 섬은 온통 법국 천지가 될 거외다. 우리가 안 싸워도 법국 세상이요, 싸워도 법국 세상이라면 우린 싸워서 원풀이를 해야 하겠소이다. 제주성 동쪽에 진을 친 동진의 강우백 장두* 어른도 우리와 같은 생각입니다.

외세의 침탈에 저항하겠다는 의지

오달문: 사또 어른, 왜 법국 군함이 무섭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이미 피를 본 백성들은 눈이 뒤집혀 있습니다. 저 백성들을 통솔하자면 똑같이 눈알이 뒤집혀야 합니다.



이재수 = 관노, 장두

제주민의 의지확인 + 우려

채 군수는 한숨을 내쉬며 이재수를 바라본다.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채 군수는 답답한지 깊은 한숨을 내 쉰다. 고개를 들어 채 군수를 쳐다보는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다. 이재수는 채 군수의 발치로 와 무릎을 꿇는다.

채군수의 고뇌를 이해하는 이재수의 인간적연모

비식 관노가 장두가 됨

신분을 의식하여 채 군수에게 예를 표하며 의견을 피력하는 이재수

[B] 이재수: 채 군수 어른, 소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채 군수: 아니 왜 이러시오? 제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재수의 지위를 인정.

하인제 (예사놀임): 존경

사도: 높임말씀

이재수: 미천한 소인이 군수 어른께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감히 장두로 나섰습니다.

채 군수: (이재수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일어나시게, 자네는 이미 내 종복이 아닐세. 장두가 이러면 되겠나.

마찬삼: 이 장두 어서 일어나시게. 자네는 장두가 아닌가. 죽대 없이 날이 서는 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하지만 제자리에 꼼짝 않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이재수.

이재수: 채 군수 어른. 관노(官奴)인 소인이 비천한 신분으로 장두에 나선 것은 젊은 객기가 영웅 소릴 듣고 뜬 야욕 때문이 아니우다. 죽지 못해 사는 우리 백성들을 뵙서게. 성을 공격하면 지금 당장은 피를 보겠지만, 이대로 흠어진다면 자자손손 더욱 많은 피를 볼 것이우다. 소인은 불쌍한 제주민들이 이번 난리로 조금이라도 나은 생활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이 미천한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한 거우다.

민중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고발. 인간이 일어난 것: 부당한 현실이 지속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

책임의 무게와 현실의 고통이 중첩된 것에 대한 비판

제주민의 처지를 이해·연민

청가보조사: 이재수의 눈도 충혈됨. (은: 단독보조사)

이재수의 목소리는 점점 울음 섞인 고통의 소리로 변해 가고, 내려다보는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된다.

- 현기영 원작 / 박광수 외 각색, 「이재수의 난」

이재수에 초점화.

* 태고: 따구. 북경과 천진으로 가는 입구가 되는 항구. 의화단의 난 때 서양 군대가 집결한 지역.

* 장두: 예전에, 여러 사람이 서명한 소장(訴狀)이나 청원장(請願狀)의 맨 첫머리에 이름을 적는 사람.

20001-0228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인물의 관습적 행동을 통해 인물 간 사회적 지위의 우열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외양적 모습이 부각되도록 인물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적 심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A]와 [B]는 모두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전달하여 인물 간의 갈등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 ④ [A]는 [B]와 달리 특정 사안에 대한 인물 간의 이견을 부각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표면화하고 있다.
- ⑤ [B]는 [A]와 달리 인물의 내면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인물이 상대에 대해 숨겨 왔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20001-0229

02 (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 주사’는 진상물이 있음을 들어 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의 부당성을 비판하고 있으며, ‘대감’은 지세가 갖는 왕세로서의 성격을 들어 지세의 당위성을 옹호하고 있다.
- ② ‘나기주’는 국가의 이권이 외국으로 넘어감에 따라 국가 재정이 악화되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국가의 이권을 넘기며 특정인이 자신의 사욕을 채기는 것을 비판하고 있다.
- ③ ‘대감’은 굴 과수원을 민간에 매각하였음을 들어 진상이 폐지되었다고 보고 있으며, ‘최 주사’는 진상이 폐지된 것처럼 보일 뿐 실질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④ ‘나기주’는 진상은 종주국에 바치는 예물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들어 지세 부과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백성의 도리를 언급하며 세곡 대신 진상을 유지하는 것의 불가피성을 지적하고 있다.
- ⑤ ‘나기주’는 ‘최 주사’의 견해가 반역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주장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최 주사’는 자연 환경의 척박함을 들어 제주 백성들의 소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20001-0230

03 (나)의 장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S# 72와 S# 83은 구 신부로 인한 갈등의 심화를 드러냄으로써 외세에 의해 제주가 보호받는 현실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S# 72와 S# 83은 다른 대화 상황에서 채 군수의 우려를 드러냄으로써 ‘법국 군대’와의 대결이 갖는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S# 72와 S# 83은 이재수에 대한 인물들 간의 상이한 평가를 부각함으로써 이재수에 대한 채 군수의 신망을 드러내고 있다. **S# 72에서 이재수 평가 X**
- ④ S# 72와 S# 83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채 군수의 시각 차이를 보여 줌으로써 구 신부를 둘러싼 인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있다.
- ⑤ S# 72와 S# 83은 ‘민당’의 성격에 대한 대조적인 평가를 드러냄으로써 전근대적 신분제도가 완화되는 시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20001-0231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fiction

보기

‘사실(fact)’과 ‘허구(fiction)’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서사물을 ‘팩션 서사’라고 부르는데, 팩션 서사 중에서도 ‘사실’ 부분을 ‘역사적 사실’로 제한하여 창작 내러티브를 만든 것을 ‘역사 팩션 서사’라고 한다. 「변방에 우짖는 새」나 「이재수의 난」과 같은 역사 팩션 서사는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하던 역사적 시기에 대한 사실적 정보를 바탕으로 서사를 구성함으로써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한다. 하지만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인물들의 허구적 면모를 가미하여 서사 속 인물로 형상화하고 그 인물들을 통해 가상의 상황을 창조하여 보여 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되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은 공백의 과거를 현재화한다. 이처럼 역사 팩션 서사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해 인물들이 갈등하고 대응하는 모습을 통해, 독자로 하여금 역사를 역동적으로 살아갔던 인간의 삶에 대한 기록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 ① (가)에서 최 주사가 ‘외국에 이권을 넘겨’준 실제 역사적 사례를 언급하는 것은 독자로 하여금 외세의 침탈이 본격화하던 시기의 공적 역사에 대한 인식을 보충하게 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이재수의 눈이 붉게 충혈되’고 ‘채 군수의 눈도 붉게 충혈’되는 모습은 허구적 사건을 겪었던 민족 구성원의 갈등을 서사 속 인물을 통해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지세’와 ‘진상물’에 대한 인물 간의 대화와 (나)의 ‘법국 군함과 군대’와 관련된 인물 간의 대화는 가상의 공백 역사를 창조하여 현재적 관점에서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군. **fact 임. fiction X 허구적 인물의 대화는 맞지만**
- ④ (가)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다는 최 주사의 생각과 (나)의 ‘명월전에서 한 짓’에 대해 분개하는 채 군수의 태도는 민족사적 사건에 대해 인물이 대응하는 모습으로 볼 수 있군. **가상의 역사를 창조한건 X**
- ⑤ (가)에서 나기주, 최 주사, 운양 대감, (나)에서 채 군수, 마찬삼, 오달문 등이 각각 당대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 내는 것은 역사의 한 시기를 살았던 개인들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군.